

#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Political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patient center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김응년 사무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Key Points**
- ☑ 응급의료 정책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영
  - ☑ 응급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체계로 개편
  - ☑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Key Words**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patient centered, emergency medical service, reg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 1. 들어가며

### 가. 응급의료의 성격 : 대표적 공공의료 영역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나 재해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하며<sup>1)</sup>, 이러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응급의료는 치안, 소방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 공공의료 서비스이다.

정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응급의료의 진료권을 설정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립<sup>2)</sup>하였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중증외상센터 운영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확충하고 2011년에는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취약지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나. 응급의료의 현황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06년 2.3%에서 2019년 8.7%로 4배 가까이 개선되었으며,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sup>3)</sup>은 2015년 30.5% 수준이었으나 2017년 기준 19.9%로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응급의학전문의를 2004년 343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337명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의 전문성도 제고되었다.

하지만 응급의료분야는 다른 전문 진료과목에 비해 정부 정책이 개입된 시기가 길지 않으며, 열악한 응급의료 기반을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응급의료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실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병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현장과 이송(119 구급서비스)을 담당하는 소방청이 분절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정책 수립이 되지 못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 2. 정부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방향

### 가.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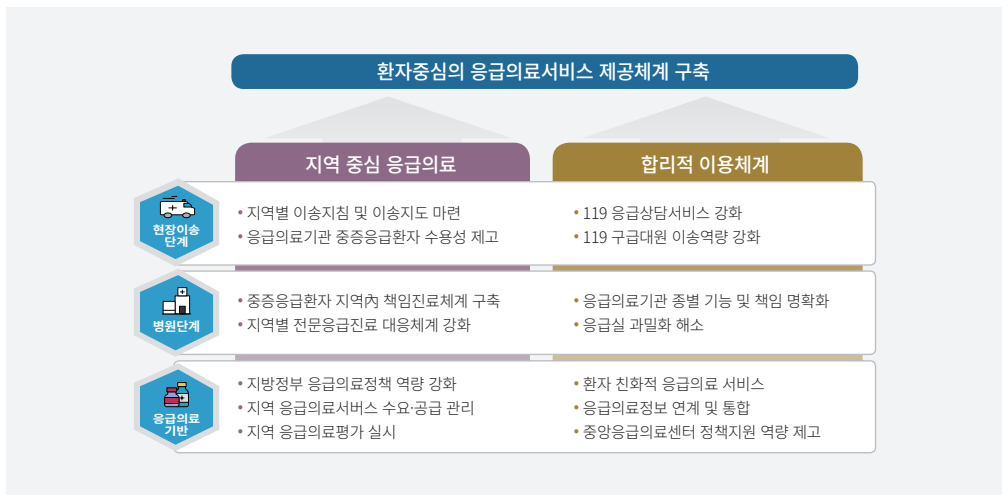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응급의료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8~2022년 응급의료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응급의료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2) 29개 생활진료권 중심으로 응급의료권역을 재편하였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응급의료권역별 적정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를 제시하였다.

3)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이하 '협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9.3.20.), 협업체 결과를 정리하여 지난 1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0.1.17.).

기본계획과 협업체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정부 응급의료 정책의 추진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환자'와 '지역'이며,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가 제공되는 때까지 통합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제공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로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2020.

#### 나. 응급의료 단계별 추진 방향

응급의료체계는 흔히 현장·이송 단계, 응급의료기관(병원) 단계, 응급의료기반 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상기 응급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현장·이송단계에서 국민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9 응급의료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인지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119 응급상담 서비스는 조사에 따르면 119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응급의료 상담 이용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적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개선

하며, 지역단위 이송지침을 마련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중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며,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거나 이송되지 않고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상급병원 응급실 쓸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 이용 비용구조를 재편하며, 지역 단위로 응급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문응급진료(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소아응급환자)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기반 단계에서는 70개 중진료권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는 등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응급의료정보와 병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용되는 매칭키(key)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연계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3. 나가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응급의료는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그간 응급의료기관·외상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제 정부는 응급의료정책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업체’를 통해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처럼 개선방향의 이행도 응급의료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지혜를 모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관의 협력 강화로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란다. ✕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8~2022 응급의료기본계획. 2018.  
보건복지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2020.  
국립중앙의료원. 2018 응급의료 통계연보. 201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은다! 보도자료. 2019.3.2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간다. 보도자료. 2020.1.17.